

미국을 살린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세계관

미국은 청교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세워진 선교적 기독교 국가이다. 기독교적 가치는 국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역사 교과서에 흠어져 있다. 기독교는 미국 신앙의 근간이며 미국의 명문대학은 신앙에 기반을 둔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美 밥 존스대학, 전 세계 크리스천 스쿨의 롤모델

밥 존스 대학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위치한 초교과 복음주의 사립대학교이다. 1927년에 설립된 밥존스대학교는 철저한 성경 중심의 교육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기독교 대학이다. 전도사였던 밥존스 시니어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학생이 대학교 생활 중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세워,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근원이라는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도록 했다. 밥존스 대학교는 가장 근본적인 크리스천 학교로써 복음전도, 양육, 높은 학구적인 기준과 크리스천 교육에 차별화를 두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학교로 성장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교 중 하나로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선거 때마다 꼭 들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밥존스에서는 대학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에 걸쳐 모든 교과서와 보조교재들을 제작하고 기독교 학교 운동을 전개했다. 밥존스에서는 성경적인 교육철학과 각 교과목의 교육원칙을 명확히 결정하여 기독교 학교의 표준 교과과정을 만들었다. 밥존스 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들은 70년이 넘도록 전 세계 기독교 학교와 홈스쿨러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비결은 성경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교과과정에 있다.

■밥존스 교재의 특성

밥존스 교재는 탁월한 학문 속에 성경을 담아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철저한 성경적 원칙과 검증된 텍스트로 교육한다. 밥존스의 진정한 가치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해 몇십 년을 앞선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성경, 기독교 대학의 기초

기독교 대학이 성경을 그 기초로 삼고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학과목을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창조세계는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곧 그분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

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거절했고,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창조세계에 비참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이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세계를 구속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정 하신 아들, 딸들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창조세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 기독교 대학에서는 수학에서부터 외국어,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실에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주제의 관점에서 가르친다.

미국 크리스천 보딩스쿨

■그로튼(Groton) 스쿨

그로튼 스쿨은 2023년도 Niche 랭킹 기준 4위의 최상위권 탑 보딩스쿨이다. 프랭크 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의 모교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 그로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8학년 학생들부터 보딩교육을 제공한다. 86%의 높은 보딩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 학생 비율은 9%로 탑 보딩스쿨 중에서 낮은 편이다. 성공회 기반의 크리스찬 스쿨로, 평일 주 4일의 아침 예배로 시작한다. 예배시간은 기도과 묵상, 성경공부와 채플 토크 등의 나눔으로 진행되며, 신앙생활과 교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지난 5년 동안 그로튼 스쿨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한 대학교는 시카고대학교(29명), 조지타운대학교(18명), 하버드대학교(17명), 예일대학교(16명), 프린스턴대학교(13명), 브라운대학교(11명), 스탠포드대학교(11명), 컬럼비아대학교(10명), 펜실베이니아대학교(10명)

를 포함,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위시한 최상위권 명문대학들이 있다.

■세인트 마크 스쿨

세인트 마크 스쿨은 2023년도 Niche 랭킹 기준 17위의 보딩스쿨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사우스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보딩교육을 제공한다. 100%의 보딩비율로 전교생 모두가 교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외국 학생 비율은 19%로 탑보딩스쿨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 2회의 아침 예배로 시작한다. 성경읽기와 기도, 묵상과 나눔을 통해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3년 동안 세인트 마크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한 대학교는 브라운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카네기 멜런대학교, 다트머스대학교, 뉴욕대학교, 예모리대학교, UC버클리대학교를 포함하여 최상위권 명문 대학교들이 있다.

■세인트 앤드류 스쿨

2023년도 Niche 랭킹 기준 27위의 명문 보딩스쿨이다. 미국 델라웨어 주 미들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보딩교육을 제공한다. 성공회 기반의 크리스찬 스쿨로, 주 2회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 학생들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 치인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돌보며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4년 동안 세인트 앤드류 스쿨의 졸업생들이 많이 진학한 대학교는 버지니아대학교(14명), 프린스턴대학교(11명), 터프츠대학교(10명), 펜실베이니아대학교(10명), 브라운대학교(9명), 다트머스대학교(6명), 예일대학교(6명), 컬럼비아대학교(5명), 뉴욕대학교(5명)를 포함한 최상위권 명문대학교들이 있다.

미국, 기독교 대학 전형 ‘역대 최고’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들이 올 가을학기에 신규 등록한 학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켄터키주 윌모어에 위치한 ‘애즈베리 대학교’는 이번 가을학기에 약 2,000명의 신입생 등록을 받았다. 이는 지난 가을학기에 등록한 1,639명보다 약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고등교육 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듀케이션(IHE)은 “대학이 설립된 1890년 이래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신입생 증가를 기록했다”며 “지난 2월 ‘애즈베리 부흥’으로 알려진 예배 모임이 2주 반 가까이 지속되면서 약 5만 명의 학생과 방문객이 기도하기 위해 캠퍼스를 방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텍사스의 사립 기독교 대학 ‘에빌린크리스천대학

교’도 이번 가을학기 1,021명의 신입생이 등록하면서 6년 연속 높은 등록률을 이어갔다. 텍사스 마샬에 위치한 ‘이스트텍사스침례대학교’는 총 1,771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11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이 등록했다고 환호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컨커디아대학교’는 지난해보다 218명이 늘어난 5,861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학교 측은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 수를 달성하며 개교 130주년을 기념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 ‘시더빌대학교’, ‘데일리대학교’, 버지니아에 있는 ‘리젠트대학교’ 등도 이번 학기 높은 신입생 등록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인류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힘의 논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류에게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단 9:26).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의 역사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 갈등의 역사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뱀의 후손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역사는 신명기 7장에도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치열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전쟁은 지상의 영적 전쟁을 예표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전쟁', 즉 '헤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승인이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할 때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7족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원수를 진멸하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포로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기로 하신다면 이긴다고 하실 때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쟁 자체가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의미가 있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같고 창

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사무엘상 17:47)"

예를 들어 6.25와 같은 전쟁은 구약이 말하는 예표적 전쟁은 아닙니다. 이른바 '거룩한 전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드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은 복역을 통한 심판이자 징계이고 세상 속에서의 유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한반도는 세계 열국 앞에 비교모판이 된 것입니다.

하마스의 양민학살로 시작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항거의 정당성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이 포격으로 후방을 흔들립니다. 침묵하던 중국이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이상 전쟁을 준비해왔다는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과 협력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 돔'과 10여 미터의 장벽이 전동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온 하마스에 의해 가볍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촘촘한 레이더는 이것에는 무용지물.

특히 이들의 전술지도를 북한이 했고, 땅굴 500킬로는 그야말로 북한의 기술지도 수출로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한반도 전쟁을 예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북한의 비대칭공격의 전형을 보는 듯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은 IS 못지않은 잔혹함으로 세계의 동정여론을 삼켰습니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은 소멸되어야 할 족속이라고 유대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면적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롬2:28-29). 혈통적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시오니즘'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선이고 하마스를 포함, 팔레스타인인들은 모두 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역사의 모델로 택해서 민족적 회복과 영적 회복으로 종말의 표징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스라엘로

이주)'은 건국시 70만 명에서 지금은 700만에 육박할 만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흩어진 유대인들)는 기적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소멸하려는것은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타겟을 제거하려는 영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가 소멸하려던 것, 하만이 모르드개를 비롯 유대인 전멸 시도,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영아학살령, 히틀러 유대인 종말작전 등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시리아-레바논-헤즈볼라-하마스-이란-북한-중국-쿠르드선과 한국-이스라엘-미국 등 서방권의 대결 구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아마겟돈 전쟁으로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 끝이 없었으나 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하마스와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두 전쟁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징계와 경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향한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각성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주여!

이 전쟁으로 인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전쟁을 통해 거룩한 공의를 보이시옵소서. 땅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열방의 거민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열방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땅끝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신공항 이륙을 위해 인구를 잡아라

새롭게 8곳에 공항이 신설된다. 한국항공공사가 관리하는 14곳의 공항 중 김해, 김포, 제주 공항 외에 나머지 11곳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활성화'라는 이유로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다. 신공항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항 8개 신설된다

국토부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중합계획(2021~2025년)'(이하 '6차 공항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공항은 모두 15곳이다.

우선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전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지역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포, 청주, 김해, 대구, 무안, 제주 등 6개 공항은 각각 권역의 핵심교통시설인 거점공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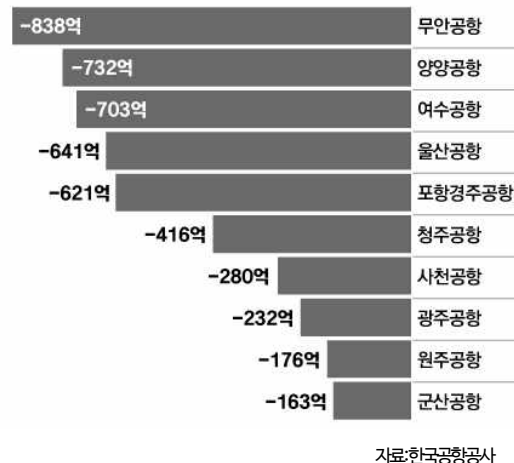
해당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관문 공항 기능도 담당한다. 관문공항은 국제선 운항 기준에 따라 한 나라의 첫 도착지나 마지막 출발지가 되는 국제공항을 의미한다. 나머지 광주, 울산, 여수, 포항·경주, 군산, 사천, 원주, 양양 등 8개 공항은 주변 지역 수요를 책임지는 일반공항이다. 국제선 기능을 갖고 있는 양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내선 수요만을 담당한다. 국제선을 탈 수 있는 곳은 모두 8곳이고, 나머지 7곳은 국내선 전용 공항이다. 여기에 6차 공항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곳이 8곳이다.

국내 공항의 경영실적

15개 공항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생과 같은 변수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은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대구 등 5개에 불과하다. 대구도 2017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적자에서 못 벗어나는 국내공항

단위: 원, 2017년~2022년 6월 누적 당기순이익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무안국제공항의 2022년 활주로 이용률은 0.1%로 전국 최하위였다. 무안공항에 이어 영업손실 2위를 기록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5월부터 운항을 멈췄다. 양양공항이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단 한 편의 비행기도 뜨지 않았다. 그때 붙은 별명이 '유령공항'이었다.

공항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SOC이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시설로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시설과 비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영실적은 지나치게 저조한 수준이다. 지방공항에 '헬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이다.

만성적자에도 신공항추진

섬과 내륙을 연결하는 울릉·흑산·백령

울릉·흑산·백령 3곳은 섬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편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동쪽 끝과 서쪽 최북단·최남단을 하늘길로 잇겠다는 것이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편인 3개 섬에 하늘길을 열어 주민편의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다. 지역의 수십 년 숙원이었던 이들 공항은 2013년 울릉·흑산공항에 이어 지난해 말 백령공항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곳 모두 50인승 소형항공기 전용 공항이다. 울릉공항은 이미 공정률이 25%를 넘어섰고, 백령공항은 2027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흑산공항도 최근 국립공원 해제 심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계획대로 2027년까지 3개 공항이 완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4개 공항과 연결된다. 뱃길로 7~8시간 걸리는 거리를 1~2시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세계화

현재도 7개 국제공항이 운영 중이지만 5개가 더 늘어나면 전국 어디에서나 해외로 연결되는 하늘길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공항, 대구경북신공항 4곳은 이미 국제선을 운영하는 국제공항으로 설계돼 있다. 서산공항도 국제선 취항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5개 공항을 건설하는데 드는 예상비용은 30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 국내 지방공항 추진 현황

자료:국토부·한국항공공사 종합

공항명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단계	수요예측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1본(3500×45m) 여객·화물터미널(27만㎡)	13조7600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	여객 2336만명(2065년) 화물 28만6000톤(2065년)
제주 제2공항	활주로 1본(3200×45m) 여객터미널(16만7000㎡)	5조1300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중	여객 1992만명(2055년) 화물 23만톤(2055년)
울릉공항	50인승 항공기 취항가능	7508억원	건설공사 중, 2025년 개항 예정	여객 109만명(2050년)
흑산공항	50인승 항공기 취항 가능	1833억원	예정지 국립공원 제외 심의 가결	여객 108만명(2050년)
새만금공항	활주로 1본(2500×45m) 여객터미널(1만5010㎡)	8077억원	설계발주 공고	여객 105만명(2058년)
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2본(3200×2744m) 여객터미널 신설	(군)11조4000억원 (민)1조4000억원	사업용역 일시중지 중 특별법안 심의 중	국토부 수요예측 예정
백령공항	활주로 1본(1200×30m)	1740억원	기재부 예타 통과	여객 76만명(2055년)
서산공항	터미널·계류장·유도로 등	509억 원	기재부 예타 시행중	여객 58만명(최종)

우리 전쟁 후 경제 판세, 어디로 흐르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전쟁이 끝난 후 피해복구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피해가 막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건설 현장으로 바뀔 것을 대비해 한국기업들을 비롯한 세계 수천개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참여 준비를 하고 있다.

뒤바뀌는 '국제 안보 지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유럽에서 발발한 국지전의 성격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변화를 유발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더해져 대서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 전쟁은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이 역사적 소임을 끝내고 신냉전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쟁 발발 직후 그동안 중립을 지켰던 스웨덴과 핀란드도 즉각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안보 전략을 바꿨다.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70년 넘게 지킨 중립 노선을 포기하였다. 반면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 서서 달라진 국제질서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눈에 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연합군사훈련을 해왔던 양국은 급기야 지난해 2월에는 '무제한 협력' 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도 했다.

러우전쟁으로 떼돈 번 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12개월간 그리스는 유조선과 운반선 등 약 125척을 매각해 40억 달러(약 5조3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후 대러시아 제재의 영향권 밖에 있는 중고 유조선에 대한 러시아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리스 선박 판매량이 급증했다. 서방의 제재가 강화하면서 러시아 석유 수출의 상당수도 그리스 선박이 담당하고 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도 서방의 대러 제재를 자국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UAE의 두바이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를 대신해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교역지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와 같은 비서방 국가의 석유 거래는 제네바에서 이뤄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립국인 스위스가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그 자리를 두바이가 대체했다.

러시아 세관에 따르면 올해 1~4월 UAE에 소재한 무역 회사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최소 3900만 시들었다. 170억 달러(약 21조5000억 원)가 넘는 규모로, 이 기간 러시아 세관에 신고된 수출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쏠린 세계의 눈

러-우 사태가 장기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준비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플랜(현재 가치 환산 시 약 1150억 달러 규모)과 비교되는 우크라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 투자 예상액	
국가 재건 프로그램	투자액(추산)
복구 사업 전 - 기관 역량 강화	약 1억 달러
복구 사업 전 - 디지털 정부	약 1억 달러
국방력 강화	약 500억 달러
EU 통합	약 10억 달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재 구축	약 200억 달러
에너지 독립과 그린딜	약 1300억 달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약 50억 달러
자금 조달의 경쟁력 있는 접근 보장	약 750억 달러
거시 재정 안정성 확보	약 600-800억 달러
부가가치 창출 부문 확대	약 500억 달러
물류 병목현상 해소와 EU와의 통합	약 1200~1600억 달러
주택 및 지역 인프라 복구 및 개선	약 1500~2500억 달러
인프라 재건 및 현대화	약 350억 달러
교육제도 개선	약 50억 달러
보건 시스템 개선	약 50억 달러
문화·스포츠 발전	약 200억 달러
효과적인 사회 정책	약 70억 달러

이나 복구·재건 사업의 규모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 7500억 달러에 달한다.

키이우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 주택 약 15만 채가 피해를 보아 손실액은 약 5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프라는 약 138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필수 기반 시설(에너지 생산 시설, 도로, 철도망, 병원 등)에 대한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이며 여기에 약 17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토목·건설 분야가 전후 재건의 큰 축을 이루며, 시설 복구를 위한 투자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체 10년의 재건 계획을 2단계로 나뉘 1차는 2023~2025년 약 3500억 달러, 2차는 2026~2032년 약 4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17개 프로그램, 약 8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재건 사업을 통해 파괴된 노후시설을 러-우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기반시설 전반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재건 프로그램 중 에너지 독립과 그린딜 분야에는 러-우 사태 이전부터 논의됐던 원전 건설이 포함돼 있으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되었던 풍력 발전 단지 가운데 약 80%가 우크라이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음에 따라 이 분야의 재건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및 ESS 분야의 협업도 매우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제적 측면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식물성오일의 세계적 산지로 국제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그중 철광석 매장량이 풍부하며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으로서 유럽에 철강을 공급해왔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우라늄 원석이 매장돼 있어 러-우 사태 이전에는 2027년까지 자국 원전에 필요한 우라늄 원료를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희토류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자체 조달이 어려운 30개 광물 중 2/3가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럽연합과의 전략 자원 매장량 공동 조사가 러-우 사태 이전부터 진행됐다. 그린에너지 전환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사업도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도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프로젝트

-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 한국해와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전쟁으로 파괴된 키이우 지역의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으로 복구, 인근 지역 복합개발
-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 한국해와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수자원공사
 -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 도시기반시설 솔루션 제시
-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 한국공항공사
 - 시스템 현대화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수립
-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재건 지원
-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 한국수자원공사
 - 지난 6월 파괴된 카호우카 댐 및 발전소 재건 지원
- 철도노선 고속화**
 - 국가철도공단 등
 - 키이우~폴란드국경 등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 노선 개선과 고속화 지원

세상을 흔드는 지렛대 챗GPT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챗GPT의 뛰어난 기능에 세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업계의 생성형 AI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챗GPT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챗GPT가 대단한 이유

일론머스크가 설립한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는 대화 생성을 위한 대규모 언어모델로 인간의 대화 패턴을 학습한 GPT4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면 자연어 처리능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비슷하게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챗GPT는 알파고 이후 6년 만에 등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챗봇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인간의 요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공 지능이다. 그래서 챗GPT는 인간 수준으로 문장과 글을 작성할 수 있기로 유명하다. 챗GPT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기존 인공 지능에 약 4,990억 개의 책, 인터넷 기사 등 데이터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양을 늘린 것만으로 지금의 성능을 얻어냈다.

챗GPT 활용하는 방법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광범위한 질문 및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경우 챗봇이

잘못 이해하여 전혀 다른 답변을 줄 수 있으니 최대한 간결하게 질문한다. 텍스트 생성(시, 글쓰기 등), 질문에 답하기,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 텍스트 요약, 일반 채팅,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AI그림 프롬프트 작성 등 다양한 작업에서 챗GPT를 한국어로 활용할 수 있다.

챗GPT 사용방법

챗GPT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챗봇 사이트이다. 단, GPT-3.5 버전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보여주는 GPT-4 모델은 월 20달러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 ① 챗GPT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된다. OpenAI 계정이 있다면 Login, 없다면 Sign up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 ② 로그인 이후 무료로 챗GPT를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사이트 하단에 있는 입력 칸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입력한다.
- ③ 한글로 질문하면 한글로 대답해준다. 단, 영어로 나올 경우 '한글로 번역해'라고 말하면 번역해준다.
- ④ 답변 도중 멈춘다면 계속 생성(Continue generating) 버튼을 클릭해 이어서 답변을 받거나 New Chat을 클릭해 새로운 채팅을 시작할 수 있다.

챗GPT는 별도의 앱이 없다. 스마트폰으로도 PC로도 웹사이트에 접속해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앱처럼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클릭해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홈 화면에 즐겨찾기를 추가한다.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로 챗GPT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 하단 중앙에 네모난 박스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다. ⇨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 추가 버튼을 눌렀다면 홈 화면에 자동으로 챗GPT 홈 페이지 바로가기가 추가된다.

안드로이드 ■삼성 브라우저로 챗GPT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 하단 우측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 현재 페이지에 추가를 클릭하고, 홈 화면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한다. ⇨ 바로가기 이름을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 ChatGPT를 검색하면 비슷한 앱들이 여러 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짝퉁 앱은 설치하면 절대 안된다. 이러한 앱 대다수는 다운로드 이후 이름, 이메일,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결제 유도를 한다. 영어라서 모르고 잘못 클릭했다가는 5~7만원이라는 꽤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해외 기업이기엔 환불을 받기도 매우 어렵다.

무료 AI 챗봇사이트 사용방법

구글 바드

챗GPT와 대항하기 위해 구글에서 출시한 챗봇 사이트로 출시 초기에는 영어만 지원했지만 현재는 한국어, 일본어 등을 포함해 총 40가지 언어를 지원한다. PaLM 2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5400억 개의 매개변수를 학습하여 상식 추론, 산수 추론, 농담 설명, 코드 생성 및 번역을 포함해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챗 GPT에 비해 한국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정확도도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답안 보기를 클릭해 생성된 3개의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무엇보다 돌아오는 답변들이 모두 간결하고, 요점만 정리되어있어 사용하기 편하다. 단, 챗GPT처럼 긴 글을 작성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빙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Bing 검색엔진과 Edge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봇으로

ChatGPT와 같은 GPT-4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 실시간 웹에서 정보를 얻어 대답할 수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답변을 잘 해준다.

메타라마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유명한 SNS 기업 메타에서 개발한 차세대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7B, 13B, 70B 매개변수 범위를 지원하고, 연구 및 상업적인 용도로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오픈소스 언어 모델보다 론, 코딩 등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지식 테스트를 포함한 많은 외부 벤치마크에서 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허깅페이스 사이트에서 설치없이 사용하거나 개인PC에 설치해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다. 단,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에 한국인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노션시

메모, 문서, 프로젝트 관리 및 기록을 도와주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Notion에서 출시한 노션 AI는 ChatGPT와 똑같은 언어 모델을 사용해 제작된 프로그래밍으로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거나 글

을 작성하는 도중 막히는 부분을 AI에게 질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간단한 표 작성부터 선택한 주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도와주거나 아예 글 전체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성한 문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챗GPT보다 편리성에서는 앞서 있다.

아숙업(AskUp)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AI 챗봇 서비스로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추가해 채팅하듯 바로 이용해볼 수 있다. OpenAI에서 제공하는 GPT 대화엔진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시켜 정확하고, 문서 내용을 이미지로 찍어 요약하거나 번역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AI 챗봇 열리

한국 중앙대 영어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AI 챗봇으로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미션, 게임 등을 진행하며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마이크 기능을 지원해 영어로 말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전 세계 사막화에 대한민국이 답하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막화의 세계화' 최근 전 지구적인 사막화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다.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약 6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땅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한다. 사막화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인 황사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 75% 사막화 진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막'은 날씨가 더워 증발하는 물의 양보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땅이 모래로 바뀌어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된 곳으로, 지구 고유의 환경이지만, '사막화'는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자연적 요인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기존에 사막이 아니던 곳이 점차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즉 토지가 황폐해지는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진행되는 사막화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형성된 경우는 20% 정도이지만, 나머지 80%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사막화의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 대규모 경작 농업, 화전, 벌채, 목축, 도시화 등이 있고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도 사막화를 촉진한다. 현재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중국, 몽골 등 다양하다.

몽골, 사막화 급속도로 진행

몽골은 캐시미어 생산을 위해 정부에서 염소 방목을 장려하였다. 과도한 캐시미어 산업의 장려로 인하여 '몽골의 목축'이 토지 황폐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몽골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후폭풍을 맞은 나라로, 지난 6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도 상승하는 동안 몽골은 무려 2.1도가 올랐다. 그로 인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몽골 전체 면적

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78%까지 확대되었다. 이렇듯 몽골의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캐시미어 산업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몽골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국토의 27% 사막화

매년 찾아오는 황사와 함께 실감하게 되는 중국 지역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미 중국 국토의 27.3%가 사막화되었다. 사막화 면적이 매년 30만 헥타르씩 증가하고 있다. 네이멍구 등 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장시, 푸젠, 쓰촨, 충칭 등 중국 남방의 12개 성·자치구·직할시, 260개 현·시에서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인구가 적지 않은 지역이기에 사막화에 따른 이주민 발생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몽골 사막화, '대한항공 숲'이 지킨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150km쯤 달리면 바가노르구가 나온다. 몽골 내 대표적인 탄광 도시다. 이곳 노천 광산의 석탄 분진은 들판을 그대로 통과해 인근 마을까지 날린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흙빛이었던 바가노르구에

2004년부터 나무를 심어왔다. 몽골 식림(植林) 활동은 매년 대한항공 임직원 100~200명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렇게 심은 나무가 12만 5300여 그루에 숲 면적은 총 44만㎡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공원의 2배 크기인 이 숲의 공식 명칭은 '대한항공 숲'이다. 메마른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포플러, 비솔나무, 차차르간(비타민 나무) 등의 수종을 선택했다. 지역 주민을 선발해 조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며, 최근에는 현지에서 고용한 식림 전문가가 바가노르구청과 직접 나무 가지치기 및 방제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광산 도시인 바가노르구에선 이전엔 바람만 불면 광산에서 날아온 분진과 먼지가 마을을 덮쳤다. 대한항공 숲은 이런 환경에서 일종의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다. 잘 자란 포플러 나무 한 그루는 먼지 약 30kg을 막는 효과가 있다. 산소를 내뿜고 나무뿌리로 토양의 수분을 잡아 사막화 방지에도 이바지한다. 대한항공 숲에 심은 비타민 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는데, 그 양이 연간 1.4t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이 나무 열매를 수확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나무들이 제법 자란 숲은 바가노르구 학생들이 견학과 소풍을 오는 명소가 됐다. 20년간 이어온 녹색을 향한 여정은 우리나라와 몽골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내 인생의 한 구절

사무엘상 2장 8절

“거름더미에 임한 은혜”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절박한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갓 스무 살이 되던 해 아르바이트를 위해 피아노 학원으로 가던 중 건널목을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던 밴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왼쪽 골반이 으스러져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린 저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면서 간호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딸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딸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찬양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였습니다.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건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후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어느 주일에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향유 욕함을 깨뜨린 마리아 얘기를 하시다가 저에게 “선생님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제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성실한 교회학교 교사로서, 청년부 리더십으로 섬겼습니다. 쉬지 않고 밤낮없이 교회에서 살았죠. 교회 사역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여름,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폐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역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폐결핵을 치료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곳은 캐나다DTS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신학교였습니다. 나의 젊음을 드리겠다는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목회자로서의 콜링이었습니다.

류사라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청년부/중등부 담당)



저는 폐결핵으로 다시 멈춘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던 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차례야. 네가 나의 종으로 헌신할 차례야”라고 말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지기 위한 길고 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름더미와 같았던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어 한 사람의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꽃대궐 주황색 손길... 한번 떠나볼까?

장마와 폭염이 지난 뒤에 찾아오는 살갓을 스치는 바람이 기분 좋게 한다. 높고 푸른 하늘은 마음을 다독이기에 충분하다. 세상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이는 단풍과 낙엽 지는 계절엔 누구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계절의 바뀔에 마음 한 켠이 차분해지는 때에 사색하기에 좋은 여행지로 떠나보자.

가장 아름다운 성당, 아산 공세리 성당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공세리 성당. 영화는 물론 드라마나 뮤직비디오의 단골 배경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곳이다. 수령 300년이 넘는 키 큰 낙엽활엽수림 덕분이다. 공세리 성당은 충청도에서 두 번째

로 오래된 역사를 지닌 성당이다. 공세리는 조선시대 충청도 서남부의 40개 마을에서 거둬들인 세곡을 보관하던 공세창이 있었던 데서 출발했다. 공세창이 성당으로 바뀐 건 1895년 프랑스 선교사인 드비즈 신부가 공세리에 부임하면서부터다. 이후 1922년에 지금의 고딕식 2층 성당 건물이 완성됐다. 성당 주위로 나 있는 오솔길은 예수 수난을 묵상할 수 있는 14처로도 유명하다. 늦가을에는 이 길 또한 낙엽으로 뒤덮여 성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종교와 예술의 만남으로 얻는 마음의 평온, 성경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조물이 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안테르센공원묘원에 이와 비견할 만한 건축물이 들어섰다. 성경의 벽(K-BIBLE)이다. 길이 83m, 최고 높이 7.7m 규모이다.



구약과 신약의 경계 부분이 니은(ㄴ) 모양으로 꺾이도록 디자인했는데, 정면에서 마주한 성경의 벽은 범선의 우아한 뱃머리를 닮았다. 시작 부분은 대형 두루마리 형태로 구현했으며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6개 외국어로 성경의 주요 부분을 들을 수 있게 오디오 설비도 했다. 정방형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6770장에 각인한 구약과 신약 성서 66권 모든 문장이 나뭇잎처럼 팔랑거리며 반짝인다. 이 벽 앞에 서는 누구든 신의 은총을 오롯이 느낄 것이다. 148만 9210자. 성경의 벽에 쓴 글자를 다 헤아리면 그만쯤이다. 마음 가는 문장 옆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거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는 글줄을 느긋하게 훑어 내리며 걷는 것도 좋다.

달이 머무르는 봉우리, 영동 월류봉 둘레길



우뚝 솟은 월류봉은 달님도 쉬어간다고 할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높이 약 400m의 6개 봉우리가 동서로 뻗어 능선을 이룬다. 깎아지른 절벽 같은 월류봉 아래로 강물이 휘감아 흘러 수려한 풍경을 이룬다. ‘달이 머무르는 봉우리’라는 이름처럼

절벽에 걸려 있는 달의 정경이 아름답다. 월류봉 주변에는 물 맑은 하천을 따라 월류봉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월류봉광장을 출발해 반야사까지 이어지는 8.4km 산책길로 총 3구간으로 나뉜다. 기암괴석의 절경과 울창한 숲길,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진다.

하늘과 숲이 맞닿은 곳, 군위 사유원

2021년 9월에 개장한 사유원은 꼭 한 번은 들러야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70만㎡의 공간으로 108그루의 모과나무와 세월을 견딘 소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가 뿔뿔이 들어서 있다. 개장시간부터 방문해 폐장시간까지 머물러도 시간이 부족한 이곳은 진정한 사유의 공간이다. 사유원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하루 20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관람료는 평일에는 50,000원 관람과 식사는 110,000원이며, 토·일·공휴일은 69,000원, 관람과 식사는 129,000원이다. 관람료가 비싼 편이다. 소유주가 평생 아꼈던 바위가 곳곳에 자리하며, 그것들이 멋진 가을의 숲과 뜰, 정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업가 유재성은 단순히 풍광이 아름다운 수목원에 그치지 않고 두지 않고 다양한 건축가와 조경가, 서예가를 초빙해 자연의 산지 정원이자 사색의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무작정 길을 따라 걸으면 어느새 순례자가 된 듯 생각에 빠진다.



비람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옥천수생식물학습원

학습원을 가곤 주서택 원장은 오랫동안 목사로 활동하다가, 이른 퇴임 후 도시 사람들이 자연의 품에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학습원은 대청호 품에 안긴 사색과 성찰의 공간으로, ‘수생식물학습원’이란 공식 명칭보다 ‘천상의 정원’이란 별칭이 잘 어울린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천상의 비람길’이다. 호젓하고 아기자기한 산책로 곳곳에서 불쑥 대청호가 나타난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 학습원이 한눈에 펼쳐지는 전망대, 수련이 가득한 연못 등을 둘러보는 맛도 일품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일요일에 쉰다. 입장료는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이다.



메타세콰이어 숲에서 힐링, 장태산 자연휴양림



대전 8경 중 하나로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어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경관과 함께 가족 단위 산림욕을 즐기는 휴양림으로 유명하다. 하루 60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80ha의 면적에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곤충원, 야생화원, 생태연못,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교과서 식물원, 명상의 숲, 야생화 동산, 전망대, 자연체험학습장, 건강지압로, 피크닉놀이마당, 매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산 입구인 용태울 저수지를 지나면 휴양림이 펼쳐지고 산 정상에 형제바위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낙조를 바라볼 수 있으며 장군봉과 행상바위 등 기암괴석이 시야를 사로잡는다.



모유, 창조주의 아름다운 생명선

모유의 장점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대체 식품은 모유만큼 건강하거나 보호적이지 않다.

영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모유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모유가 다른 수유 수단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다. 단공류, 유대류, 진수류를 포함하여, 모든 포유류는 암컷의 유선에서 분비되는 젖을 새끼에게 먹인다. ‘유방의(mammary)’라는 단어는 포유류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저널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었다: “모유는 필수적이지만, 과학자들은 모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러한 무지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모유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믿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생후 6개월까지 모유를 먹는 영아가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한 분석에 따르면, 모유 수유는 출생 후 첫째 영아사망률을 무려 33%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아사망률 감소는 모유의 축복에 추가된 또 다른 혜택이다. 모유가 모유 수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아기와 엄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창조론적 세계관에서, 이 결과는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젖(milk)이 어미의 몸에서 흘린 땀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적 이야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이다. 진화론자들의 젖의 진화적 기원은 다음과 같다.

젖은 단공류의 선상 피부 분비물로서, 아마도 약 3억1천만 년 전인 펜실베이니아기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단공류는 건조에 잘 견디지 못하는 양피지 같은 껍질의 알을 낳았으며, 수분을 얻기 위해 피부 분비샘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유선은 여러 분비 방식이 결합된 그리고 모낭과 연관되어 발달된 아포크린 유사 분비샘에서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미의 땀은 새끼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페달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었다:

젖 성분의 진화적 기원은 포유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이러한 분비물이 영양이 풍부한 젖으로 진화했다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항균 및 분비 성분들이 새끼의 영양과 관련된 새로운 역할로 *함께 채택되었다*. 분비성 갑상 결함 인단백질은 원래 알에 갑숨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크고 복잡한 케세인 미셀로 진화하면서, 아미노산, 갑숨, 인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젖의 모든 주요 성분들은 포유류가 출현하기 이전에 진화했으며, 일부 성분은 단공류가 석형류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기원을 가질 수도 있다.

젖의 진화를 설명은 위 인용문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것처럼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유는 면역계 형성에 중요하다.

모유에는 면역글로불린 A(IgA)가 들어있어서, 아기의 면역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건강한 어린이와 성인에서 IgA는 가장 풍부한 항체 유형이다(전체 체내 면역글로불린의 약 70%). IgA는 눈물, 침, 땀, 미생물 감염시 비노생식기 관에서 분비되어, 점막 조직을 보호한다. 또한 IgA는 미생물군의 면역 항상성을 유지한다. 또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산모는 아기에게 필요한 고유한 모유 항체 세트를 아기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유지 관리는 장내 병원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에 중요한 장내 미생물군을 발달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모유는 두뇌 발달에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 인구의 모유 샘플을 분석하여, 뇌 발달을 촉진하는 미오-이노시톨이라는 탄소화당을 발견했다. 또한 뇌 연결성의 형성과 유지는 유전, 경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생애에서 뇌의 발달은 두 단계에서, 즉 유아기 동안 뇌가 성장하는 시기에, 그리고 시냅스 손실이 발생하는 노화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 특별히 연구자들은 모유 성분인 미오-이노시톨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유 성분인 미오이노시톨이 인간 뉴런을 포함하여 여러 생물 종들의 시냅스를 발달시키는 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오이노시톨이 신경세포의 연결을 촉진하고, 생애 단계에 따른 식단 권장 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원 부족 지역의 소아 영양 및 유아용 조제분유의 개선에 중요할 수 있다.

모유 수유는 산모의 유방암 및 난소암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춘다.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엄마의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도 낮춘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를 한 어미 쥐는 수유를 하지 않은 쥐에 비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신진대사에 변화가 있음을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이 연구는 생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다음 단계는 이 연구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모유 수유가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당뇨병 발병의 한 가지 원인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의 효율성 저하이다. 인슐린은 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시켜, 세포의 에너지 요구량에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혈당을 낮춘다. 유전적 돌연변이와 비만은 종종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이것은 임신 중에, 특히 임신 세 번째 3개월에서 악화된다. 많은 사람이 수유가 체중 감소를 유발하여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의 보호 효과는 체중 감소와 무관한 여러 메커니즘들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칸 의과대학의 연구자들은 최근 유관 세포에서 분비되는 “맘모카인”이라는 호르몬 계열을 발견했다. 이 맘모카인은 정상적인 유방의 생물학, 지방세포의 생리, 에너지 균형 조절에 기여한다. 이 발견은 유방암과 수유 관련 장애의 발생과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맘모카인은 유선 지방(지방 조직) 기능 장애와 관련된 대사증후군과 같은 신생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임상의가 특정 종류의 뇌성마비의 원인과 치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뇌성마비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정도로 발생하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6만 명의 아기들이 조숙아(임신 32주 이전)로 태어난다. 이 중 10%의 아기는 뇌백질의 신경섬유가 손상되어 뇌성마비가 발생된다. 듀크대학 연구자들은 신생아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모유에서 한 분자를 확인했는데, 이 분자는 뇌 줄기세포가 새로운 백질을 생성하는 세포를 만들어, 뇌성마비가 유발되는 상태를 역전시키는 과정을 촉발하고 있었다.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이 아기에게 가슴 수유를 할 수 있을까?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호르몬을 투여한다면, ‘가슴 수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남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보조 물질들이 아기와 남성 모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지 않다는 점이 포함된다. 남성에서의 젖 분비는 위에서 설명한 모유의 많은 이점을 대체할 수 없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수유나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도 젖의 분비에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젖꼭지, 유선 및 뇌하수체)로 되어 있지만, 모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수치가 부족하다. 다량의 여성호르몬을 사용하면, 일부 남성은 수유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성에서 생산된 모유의 영향을 확인해주는 장기적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모한 시도이다. 호르몬 약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유를 생산하는 남성은, 또한 이러한 호르몬 약물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많은 양으로 전달되어, 불규칙한 심장박동(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아기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열방의 다이제스트

英 수감자 포화상태로 해외 감옥 임대 검토

영국 감옥의 수용능력이 한계치에 달해 강간범이나 절도범 죄자들이 수감되지 않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의 사법 당국은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 석방 대책을 발표할 것이며 법원 판사들에게도 성범죄자와 절도범은 즉각적인 구금형을 선고받는 대신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졌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구금할 경우에는 치안 판사 관할의 감방에 갇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소도의 수감자 수는 모두 8만 8016명에 달했다. 남아 있는 수용 공간은 650여 개에 불과하다. 영국 법무부(MoJ)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형사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만4709건으로, 전분기 대비 4% 증가했다. MoJ는 수감자 수가 2025년 3월까지 9만4400명, 2027년에는 10만6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장관은 다른 나라에 교도소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외국의 감옥에 복역할 범죄자를 해외로 내보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태국, 15년 만에 지구관측 인공위성 1호 발사 성공

태국이 자국 두 번째 지구관측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2008년 태국 첫 지구관측위성이 발사된 지 15년 만이다. 태국 지질정보·우주기술훈발청(GISTDA)은 '테오스-2' 위성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위성은 로켓에서 계획대로 분리돼 궤도에 진입, 신호를 전송하기 시작했으며 약 3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무게 425kg, 공간해상도 50cm의 테오스-2는 고해상도로 지구 표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08년 발사돼 수명을 다한 태국 최초의 지구관측위성 테오스 1호를 대신해 안보, 재난, 농업, 수자원, 천연자원, 생태계 등의 관리와 도시 계획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태국은 프랑스와 협력해 지구관측위성 발사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테오스 2호는 GISTDA와 프랑스 에어버스가 공동 개발했다. 태국은 100% 자국 기술로 테오스 3호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美 캘리포니아, '고교서 콘돔 무료 지급' 법안 제동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전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을 추진했지만, 좌절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예산 문제를 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전 모든 공립고등학교(9~12학년)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약 194만 명이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40조4700억 원)가 넘는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 공개처형 증가...한류 유입 경계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8월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됐다고 선언한 후 공개처형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는 인원이 매년 10여 명 정도였으나, 지난 1년간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경 봉쇄 해제로 타국과 왕래가 늘어나면 한국 문화가 유입돼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경계하며

한국 드라마와 음악 배포 등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0대 청년이 공개처형된 사례도 전했다. 북한에서는 올해 들어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내부 문서나 사진을 외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많은 사람이 구속됐고, 이들이 공개 처형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공개처형 확대로 주민 공포심을 부추겨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억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코로나 거치며 종교절벽 시대 오나

한국 주요 종교 모두 성직자와 출가자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충격과에 휩싸였다. 불교 조계종 출가자는 지난해 6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1년 517명에 달했던 출가자 수는 2015년 204명으로 줄었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3년 연속 출가자 100명 선이 깨졌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작년 7개 교구 입학 신학생 숫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밑돌아 큰 충격에 빠졌다. 입학 신학생은 1년 새 35명이 줄어 75명을 기록했다. 1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신부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부

산가톨릭대는 2019년부터 신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던 개신교에서도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총신대는 목회학석사 과정 신입생 343명(특별전형 포함)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321명에 그쳐 미달을 기록했다. 1980년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3년간 바이러스의 위력으로 과학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커진 반면 종교는 무력해진 상황이었다. 성직자·출가자 감소와 함께 종교를 믿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적지 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설탕도 소금도 1년 만에 최고치 상승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41.58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6.9% 상승한 수치이며 1년 만의 최고치다.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3.7%)과 비교하면 4.6배 오른 셈이며 가공식품 부문 물가 상승률(5.8%)과 비교해도 2.9배가 높다. 소금 물가도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소금 물가 상승률은 17.3%로 지난해 8월

(20.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소금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5%를 나타낸 뒤, 7월 7.2%, 8월 12.4%에 이어 지난달 더 커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요가 급증한 데다 폭우와 태풍 등으로 소금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설탕과 소금 가격이 크게 뛰면서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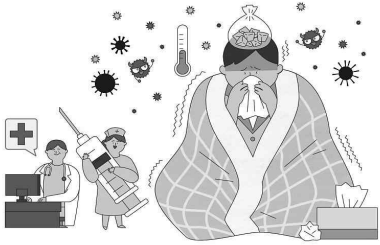
동전 사라지는 속도 작년보다 2배 빨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주화 순환수 금액은 1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순환수액은 환수액에서 발행액을 뺀 금액이다. 이 액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시중의 수요가 높지 않아 재발행 속도를 늦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드 등 현금이 아닌 지급 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주화 사용도 줄었다. 한국은행은 매년 꾸준히 진행해오던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지난 2019년 5월 2억 2천100만 개 동전, 총 322억 원어치를 은행권으로 교환한 것이 마지막 캠페인이었다. 반면 지폐 사용은 증가세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화폐 환수율은 85.0%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71.3%를 웃돌았다. 특히 한때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5만 원권 환수율은 올해 1~7월 76.3%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점점 세지는 독감 이번엔 무슨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추석 이후 기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의 유행기준을 병원을 찾은 환자 1000명당 6.5명으로 정했는데 지난 9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환자 1000명당 독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20.8명에 달한다. 독감유행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독감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독감 유행주의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그 증상이 훨씬 심하며, 고열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이후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고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1년 내내 유행주의보가 이어진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독감의 유행세가 꺾이려면 자연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들에게 항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너무 오랫동안 독감 유행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항체가 미처 형성되지 못했다.

독감(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은 감염된 사람의 기침 또는 재채기로 나온 분비물들을 흡입하거나 감염된 사람의 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할 때 확산된다. 독감은 흔히 오한으로 시작되며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 감기와 다르게 몸살이 난 것처럼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되면서 식욕도 없어지고 기운을 차리기 어렵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

신체가 건강한 젊은 사람은 독감에 걸려도 합병증 없이 호전될 수 있지만, 2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신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독감에 걸린다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의 대표적 합병증은 '폐렴'이다. 바이러스성 폐렴이나 세균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이나 귀, 심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후 길랭-바레증후군이나 뇌염 같은 신경계 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독감이 유행하기 전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독감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감 유행 시기

독감 유행 시기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2월 즈음 절정에 이르며, 길게는 5월까지도 지속된다. 올해 독감 유행은 소아를 포함한 초·중·고교 학생(7세~18세)이 주도한다. 연령대별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12세 53.8명, 13~18세 31.8명, 1~6세 22.9명으로 모두 평균치를 웃돈다. 특히 초등학교 독감 환자는 유행기준(1000명당 6.5명)의 8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독감 유행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해 사실상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정책에 따라 미생물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다.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면역 빗' 영향으로 감염병에 취약하다. 여기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감염병이 확산하기 쉬운 '3밀 환경'(밀집·밀집·밀폐)이 조성돼 감염병 확산을 부채질했다. 면역력이 약해진 집단이 교실·학원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한 명만 감기·독감에 걸려도 바이러스가 전체로 퍼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연출된다.

독감 예방은 백신 접종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독감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중순 이전에 예방주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감 백신은 접종 후 2주 뒤에 바이러스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백신 접종 직후에도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매년 그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온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형도 다양하고 변이도 빠르므로 매년 그해의 백신을 새로 접종한다. 임신부나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꼭 접종한다. 무료 접종대상자가 아닌 성인에게도 독감예방접종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예방접종은 컨디션이 좋은 날 받는다.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면 접종은 다른 날로 미룬다. 접종 시간은 오후보다 오전에 받는다. 오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혹시 모를 접종 후 후유증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종을 받은 당일에는 과한 운동이나 과로 등 무리한 활동을 가급적 삼간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기간

구분	2023-2024학기 사업기간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접종 대상자*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접종 대상자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세 이상 • 70~74세 이상 • 65~69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는 경우 해당하며, 1차접종 4주 후 2차접종 필요

무료 접종대상자가 아닌 경우 유료로 독감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서울/경기 기준, 독감예방접종의 평균가격은 약 40,000원이다. 최저가격은 17,000원대, 최고가격은 50,000원대 이상으로 병원 간 가격 편차가 매우 크다. 사전에 독감예방접종 가격을 확인하고 독감백신을 접종 받도록 한다.

독감과 코로나 다른점은?

■독감

독감은 대부분 38~40℃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며 시작되고 열이 오래간다.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코로나

코로나는 발열을 포함해 인후통을 동반하며 시작된다.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의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난다. 그 외 가래, 인후통, 객혈과 오심, 설사, 후각/미각 저하 등이 나타나는 예도 있다.



독감에 걸렸지만 더 빨리 낫고 싶다면

굴청 굴은 비타민C가 풍부하므로 감기에 좋다. 신선대사를 원활히 하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굴이지만 그냥 먹기 싫다면 굴청에 뜨거운 물을 부어 따끈하게 차로 마신다.

홍삼액 홍삼은 면역력 증진에 좋다. 피로회복은 물론 원기회복에도 좋아 감기든 독감이든 빨리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 개선에도 좋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도 좋게 한다.

녹차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고열과 근육통이 시작되고 기침과 콧물, 가래가 동반된다. 증상이 감기보다 심하고 통증이

나 피로감이 남을 수 있어 면역력에 특히나 신경 써야 한다. 녹차에는 데아닌과 카테킨은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좋다.

버섯 분말가루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버섯은 독감에 매우 탁월하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 각종 성인병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

매실청 독감에 걸리면 근육통을 동반한 피로도가 남는다.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작용을 돕고 근육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풀어주는 매실이 탁월하다.

준비됐습니까? 다문화 이웃과 더불어 살기

대한민국 인구의 다문화, 다인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5년 전에 비해 가구수가 25%나 늘어나는 등 인종의 다양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이주민들과 구체적인 사회적인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슬람 관련 이슈와 이슬람 문화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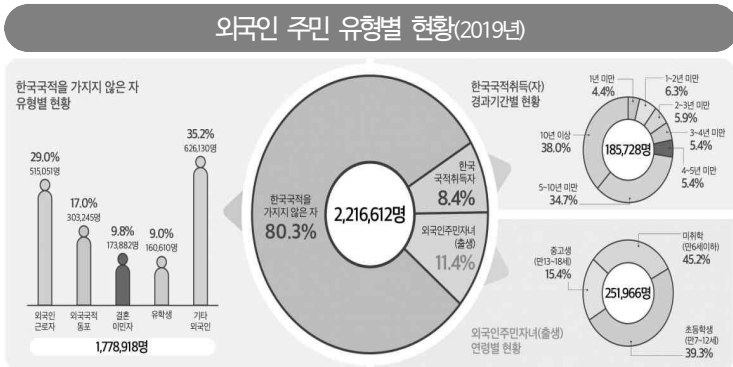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단일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던 시절은 과거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7년 8월에 100만 명, 2016년 6월에 200만 명을 돌파한 후 2019년 12월에는 250만 명을 넘어섰다. 그 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가 약간 줄었지만 2021년 들어서면서 다시 회복됐다. OECD는 '이주를 배경으로 하는 인구', 즉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이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2040년에는 체류 외국인의 수가 350만 명을 돌파하는 한편, 한국인의 수는 5,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 외국인의 수가 국내 인구의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되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내국인 출생률 저하로 인구가 급감하여 국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한편,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으로 오길 원하는 외국인은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앞으로 일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반 이민자 수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과 만나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온 한 축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2만5000여 명이 국제결혼을 한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전체의 6%에 이른다. 교육 현장의 모습도 달라졌다. 전국의 초등학교 269만 명(2020년 기준)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은 10만7000명이다.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경기도 안산시 전체 초학생 중 다문화가정 출신은 10%를 넘는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한국 선교의 새로운 변화

한국 체류 외국인 수를 국적별로 보면, 2020년 말 중국인이 894,906명(44%, 한국계 포함)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베트남인 211,243명(10.4%), 태국인 181,386명(8.9%), 미국인 145,580명(7.2%) 등이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완, 미얀마, 스리랑카, 홍콩,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통계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대부분 비기독교 국가 출신임을 보여준다. 국내 거주 미복음화 국가 출신 외국인과의 이주민을 향한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다.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그들을 우리 집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선교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다. 서울권에 있는 다문화 밀집 지역으로는 용산구 이태원의 무슬림 밀집 지역과 아프리카 타운, 용산 2동 힌두 타운,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의 중국인 타운, 성동구 왕십리의 베트남인 타운, 중구 광희동의 몽골 중앙아시아인 타운, 창신동의 네팔인 타운 등이 있다. 경기권에는 더 많은 집단 거주 지역이 있다. 안산 원곡동은 전체가 다문화 마을 특구이다. 시흥시 정왕동의 중국 동포 타운, 인천 연수 1동의 중앙아시아인 타운, 인천 부평구 부평 1동의 미얀마인 거리, 포천 송우리의 외국인 마을 등,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집단 거주지가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민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주민 선교의 대상을 세분화하면 다문화 가정, 근로자, 난민, 그리고 유학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상별로 사역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주 근로자나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온 유학생 대부분은 미복음화 국가 출신이다. 자국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이 많다. 유학생은 그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들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 집단 중에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큰 부류가 유학생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경우 장차 출신국의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슬람 문화 스며들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이슬람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국 법무부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 내 무슬림 인구는 2021년 기준 총 26만 명으로 이중 순수 한국인 무슬림이 6만 명을 넘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0.4%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이슬람 문화는 대학 무슬림 동아리·할랄 식당·K코란·한국인 무슬림 셀럽 등장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한국 내 무슬림 인구 증가세에 따라 이슬람 사원 모스크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75년 이태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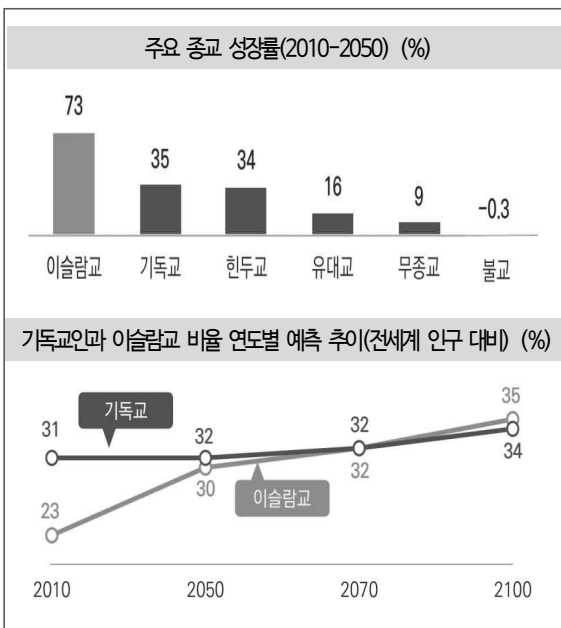
세워진 첫 모스크인 한국 이슬람교 중앙 성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모스크 23곳이 등록돼 있고, 작은 기도처인 무살라는 221곳에 이른다.

1970년 중동 건설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슬림 교도가 생겨났고, 1975년 석유 위기 이후 중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시 박정희 정부가 친아랍정책을 펴면서 이 흐름에서 생겨난 것이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이다. 이후 1990년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한국사회의 무슬림 확산을 가져왔는데,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무슬림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슬림(한국인과 무슬림을 합친 용어)의 탄생도 늘고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이슬람의 포교전략 중에 유럽에서 가장 확실히 성공한 방법으로 무슬림의 이주 및 결혼과 출산 전략이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외국인 무슬림 남성들과 결혼하고 있고, 이것은 무슬림들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및 국적취득, 그리고 이슬람 인구 확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통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의 결혼 개념이나 문화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결혼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1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 같다. 무슬림과 결혼하는 것은 위험한 수렁에 스스로 빠지는 것과 같다. 이슬람의 결혼을 통한 속셈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것이다. 국내 무슬림 확산과 이로 인한 문화적 충돌, 갈등 등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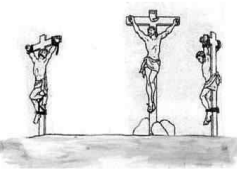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2			6		7
2		3		3		4			
							5	18	
		4		5					
10				7		8			15
		9						14	
11	11					8	16		
			13		12				17
	12						15		

가로문제

-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증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아시아 경기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운동 경기 대회
-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전날 밤에 열두 제자에게 그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
- 장사를 지내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거나 남의 장사지내는 일을 맡아 하는 장소
- 한 번만 쓰고 버림
- 여러 말이 서로 오고 감
- 한 가정의 살림의 규모와 수입과 지출 따위를 적는 장부
- 서양화의 하나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빠른 속도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땅속으로 굴을 파서 설치한 철도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줌
- 협조를 요청하는 글
-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작은 그릇에 반찬과 함께 담은 밥
- 목욕탕이나 수영장 따위에서,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방
-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 수박이나 참외 따위를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밭머리에 높게 지어 놓은 막

세로문제

-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 악을 쓰며 부르짖는 소리나 그 상태
-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위의 임무를 맡긴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게 하려고 국가에서 정한 날
- 신문, 잡지 등에서 펴낸이의 주장을 실어 펼치는 논설
-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의 쇠줄
- 노래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 기업과 기업 또는 정치인과 기업 사이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 손가락 안쪽의 끝에 있는 살갗의 무늬
- 서로 대답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 투시도의 하나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양을 그린 그림이나 지도
-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사라짐
- 어떤 데에 끼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빠짐

- 투표나 의결 등에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
- 자녀의 아들
-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모아 돌보는 시설
- 연중 강수량이 적은 데 비해 증발량이 많아 초목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모의 토지
- 어떤 곳을 갔다가 돌아옴

<지난 10월호 정답입니다>

태	풍			거		십	일	조
수	면		주	름	살			련
지		실	레	신	진	대	사	
승	리	감		성		들		
부			장	본	인		보	완
수	증	기	애					전
		침	전	물	복	수		무
	청		붓	수	다	수	결	
침	소	봉	대		염	탐	강	
묵					문	하	생	

미로찾기



©2014년

누백을 10:25-27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생명터치
Life Touch!



2023년 11월 12일 (주일)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15분 / 3부: 오후 2시, 본당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27

전교인 노방전도
■ 10월 7일 · 14일



차세대사역



헌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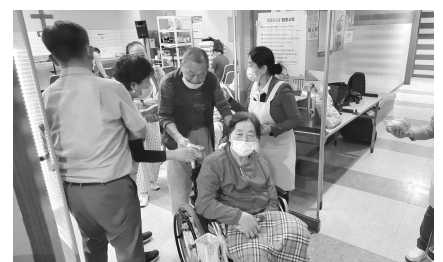
김호성/임소진의 아들 김은호



박수경/손주희의 아들 박보겸



◀잡스
글로리병원▶
예배



◀실버스쿨
연령별모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평목장
김미성자매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로 섬기며 봉사하다가, 신랑이 직장을 옮기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심한 시기라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기가 쉽지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근길에 팔을 다쳐서 수술하고 깁스를 하게 되면서, 한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저의 마음은 힘들어졌고 점차 삶과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팔도 회복이 되면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친구 신랑인 목사님이 몇 군데를 추천해 주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박인용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월드와이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색하지만 하였고 낯설었는데 새가족팀의 박상근 장로님이 인도해 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이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또 한동안 교회를 갈 수 없

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고 점차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다시 교회를 나오게는 되었지만 어려워진 경제적인 상황과 이로 인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상근 장로님과 목장지기님으로부터 일대일 제자 양육을 제안받게 되었고 ‘지금 내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주 동안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강현수 권사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점점 사람에 대한 부담감 없이 내 마음과 힘든 것들을 이야기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통해 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성경공부 기간 큐티와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과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무너진 삶과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대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운 마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직장 and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산1목장
정호영목사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 월드와이드 교회에 와서 아내의 권유로 일대일교육

을 받았는데 그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던 차에 김강준장로님이 일대일교육을 제안하셔서 고민 끝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기가 힘들었으나 회가 거듭될 수록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를 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족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 저는 제 의지, 제 노력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양육과정과 경건 훈련을 통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네비게이션이 방향을 안내해주듯 믿음 생활의 이정표는 일대일 양육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 읽기와 큐티 그리고 기도생활 성도간의 교제, 사역, 전도 모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귀한 성도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이 계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대일하시면 많은 은혜가 되실 겁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주일랜드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사역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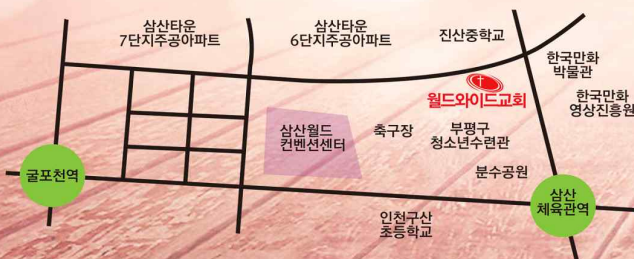
2023 하반기 블레싱 전도축제

생명 터치
Life Touch!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 마가복음 9:27

2023년 11월 12일 (주일)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15분 / 3부: 오후 2시, 본당



*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초청일과 전, 후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2023 하반기 세이레기도회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 계3:8

열린 축복 문의
주인공이 되라

11월 26일 (월) ~ 12월 16일 (토)

월~금: 오후 8시 / 토: 오전 11시 본당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